

2020

정책연구 2020-05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조원지 · 정호중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0-05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조원지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정호중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공석기 ·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

이정화 · 전남대학교 교수

류유선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수 ·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연구관리 코드 : 19JU2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선행연구 고찰	5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4. 연구 추진체계	15
제2장 전북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정책	17
1.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 현황	19
2. 농촌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정책	33
제3장 전북 결혼이주여성 농촌사회 일자리 인식조사	49
1. 조사개요	51
2.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변화과정	58
3. 실무자 및 전문가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에 대한 인식	65
제4장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 방안	71
1. 지원정책 기본방향	73
2. 정책과제 추진방안	76
제5장 요약 및 결론	99
참고문헌	107

표 목 차 | Contents

〈표 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연구동향	7
〈표 1-2〉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연구동향	11
〈표 1-3〉 결혼이주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연구동향	13
〈표 2-1〉 농가 수 및 농가인구(2015~2018년)	19
〈표 2-2〉 전국 및 전북 연령별 농가인구(2018년)	20
〈표 2-3〉 전국 및 전라북도 주종산업별 농가인구(2018년)	21
〈표 2-4〉 전북 결혼이주여성 현황(2013~2017년)	22
〈표 2-5〉 전북 국적별 결혼이주여성의 도농 거주지역 분포(2015년 기준)	23
〈표 2-6〉 전북 체류기간별 도농 거주지역 분포(2015년 기준)	23
〈표 2-7〉 전국 및 전북 다문화 농가 수 및 농가인구(2014~2018년)	24
〈표 2-8〉 전국 및 전북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2018년 기준)	25
〈표 2-9〉 전북 도농 결혼이주여성 직종 분포(2015년 기준)	26
〈표 2-10〉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향후 취업 희망(2015년 기준)	27
〈표 2-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최근 3년간 교육 경험	28
〈표 2-12〉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최근 3년간 교육 중 유익한 교육	30
〈표 2-13〉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관련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31
〈표 2-14〉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는 기관	32
〈표 2-15〉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39
〈표 2-16〉 중앙행정기관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41
〈표 2-17〉 결혼이주여성 농업교육사업	42
〈표 2-18〉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43
〈표 2-19〉 농업기술센터 교육사업	44
〈표 2-20〉 전라북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자체사업)	46
〈표 3-1〉 결혼이주여성 면접조사 주요 질문사항	52

〈표 3-2〉 기관 유형별 주요 질문사항	54
〈표 3-3〉 면접조사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	56
〈표 3-4〉 면접조사 참여 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의 기본 정보	57
〈표 3-5〉 실무자 및 전문가의 주요사업 및 내용	65
〈표 4-1〉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창출 방안	75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5
〈그림 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34
〈그림 2-2〉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36
〈그림 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	38
〈그림 4-1〉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 정책 로드맵	75
〈그림 4-2〉 경상북도 인도네시아 농업연수단 초청	86

1

장

연구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0년 이후 농촌 미혼 남성들의 만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농촌의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크게 증가함.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농촌 현실에서 농가 및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한국 사회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둔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은 이들의 장기 정착화에 따른 경제적 자립역량강화 정책의 내실화를 목표로 다문화가족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도시의 취·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농업·농촌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위한 취·창업교육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 최근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변화로 농업·농촌 정책 대상은 먹거리 생산과 생산 공간에서 농촌융복합산업과 구성원의 일상생활과 일자리로 구성된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
- 농촌 지역사회 일자리는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와 구성원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성이 요구됨
- 농업 기반 일자리 분야의 경우, 농촌 여성은 노동집약적인 농업환경에서 남성농업인 역할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 농업 종사자의 인적 구성 변화를 이끌고 있는 농촌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질적 변화로 농촌 관련 산업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고 있음
- 농촌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정착뿐만 아니라 농업 인력 역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이농현상과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 사회의 변화는 농업 산업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농촌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젊은 인구 감소는 국제결혼으로 농촌 사회

에 정착한 젊은 연령층의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음. 또한, 다문화출신 자녀 양육 및 교육을 통한 미래 인력 양성의 중심에 있음

- 농업·농촌사회 분야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기대되고 있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 환경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 욕구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촌사회 이해, 한국어능력과 가사·육아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농촌산업 및 농촌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인적 자본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전북 농촌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가구의 높은 여성비율을 감안해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적응과 농촌 지역사회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요구됨
- 농촌사회의 변화에서 결혼이주여성 역할의 범위와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지지가 요구됨.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사회 일자리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역량에 따른 일자리 선택이 가능한 일자리 환경 기반이 요구됨
- 결혼이주여성들의 잠재성을 발굴하고 이들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함
- 이 연구는 전라북도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농업·농촌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지위를 조명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농촌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농촌 사회의 변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모두 반영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역량 발휘와 농촌공동체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농촌사회 일자리를 발굴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선행연구 고찰

- 결혼이주여성 대상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경험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주를 이루며,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
- 이들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분류하며, 기존의 인구집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및 하위집단별 특성을 제시함
- 개인,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일상과 정착 경험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임
- 농촌 결혼이주여성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농촌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봄. 또한, 농촌사회 주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파악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은 크게 사회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특성과 결정요인들을 살펴봄. 크게, 가정생활과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농촌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제시됨
- 가정생활의 경우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 가족갈등, 가족의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와 농촌사회 적응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출신국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 관계 및 문화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출신국 친구 수와 모임이 클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지역주민과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인 한국어능력, 학력, 읍면 단위 거주지역, 소득, 거주기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자본 등은 이들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국 문화와 농촌 지역사회 적응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로 나타남
- 농촌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과 다문화가정의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봄
- 농촌 다문화가정의 영농기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농지 소유 면적 역시 일반 농가에 비해 적어 취약한 영농기반을 보이며, 절반 이상이 연간 가구소득은 전국 농가의 평균 가구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함
- 경제적 취약계층인 가정의 경우, 경제적 필요성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은 노동집약적이고 비정규적인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낮은 질과 불안정성 특성은 농촌사회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은 모국에서의 관련 경력, 학력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사회적 차별, 거주기간, 한국어능력, 정책 인식도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구직경로의 다양성 및 직업훈련 교육 접근성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015년 기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설동훈 외, 2015), 절반 이상이 거주기간 5년 이상이었으며, 출신국은 베트남, 중국 한국계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연령은 30대 이하, 배우자는 40대 이상이 각각 70% 이상, 89.0%이었으며, 여성의 학력은 고졸, 여성과 배우자 모두 고졸 이하는 각각 42.9%, 60%로 나타남
-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시보다 군지역에서,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높은 고용률을 보임. 구직과정의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자리 부족으로 뽑았으며, 저숙련 직종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남. 개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구직 경로인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사회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특성을 살펴봄
- 농촌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과정과 특성에 대한 심층적 접근과 이해가 부족하여,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 및 농촌생활에서 당면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북 농촌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 이들의 욕구 및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의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표 1- 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연구동향

저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김경애(2012)	·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와 결정요인(개인특성요소, 다문화사회 환경적 요소, 정책적 요소)	· 광주 거주 결혼이주여성 224명	· 설문조사
김기홍(2011)	·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적응 과정과 농촌생활의 의미	· 결혼이주여성 22명, 정보제공자 등 22명	· 심층면접조사
김기홍·허태영 ·황명진 (2011)	· 사회자본 관점에서 농촌사회 정착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체적 참여와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모색	· 농촌 결혼이주자 22,788명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 22명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원자료 분석 · 질적조사
김학실(2011)	· 충북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욕구 분석과 충북 지원정책 조사 ·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적 지원방안 모색	· 농촌 다문화가족 2,406가구	· 행정자료분석 · 문헌조사
김한곤 (2009)	· 농촌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 파악(언어영역, 문화영역, 가족생활영역)	· 결혼이주여성 238명	· 설문조사
박대식·마상진 ·권인혜 (2011)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 및 문제점(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 · 농어촌주민의 인식 ·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다문화가족 400가구(결혼이주여성 400명, 한국인 남편 400명, 시부모 100명)	· 면접설문조사, 우편조사, 심층면접조사

저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박대식·안석· 김남훈·임지은 (2018)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및 사회통합인식 영향 요인 · 사회통합 관련 정책 실태 및 개선방안	· 설문조사 (농촌 다문화가정 514명: 여성 결혼이민자 300명, 남편 106명)	· 초점집단면접조사 · 심층면접조사
박재규 (2013)	· 도시 및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실태 및 취업 결정요인 비교	· 결혼이주여성 28,636명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 구 원자료 분석
박행모·문승태 (2008)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적응 및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결혼이주여성 155명	· 설문조사
박대식·최경은 (2008)	· 농촌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 · 농촌 다문화가족 특성 (결혼생활, 영농 및 경제활동, 사회참여참여 및 사회복지 이용) ·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 농촌 다문화가정정책 개선방향	· 다문화가정 400가구 (여성결혼이민자 400명, 남편 400명)	· 설문조사
설동훈·박신규 ·이순미·박순 영 (2015)	·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한국 사회 적응, 교육 및 지원, 보건의료 및 삶의 질, 자녀양육 및 교육) · 행정구역, 도시·농촌, 출신국, 귀화여부, 체류기간,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 ·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전북 여성 결혼이민자 5,347명	· 설문조사
양승민·연문희 (2009)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문화적응 실태(사회생활 및 한국문화)	· 다문화가족 3가구(결혼이민여성 3명, 배우자 3명, 가족 3명)	· 심층면접조사 · 집단면접조사 · 글쓰기

자료 : 참고문헌에 연구제목, 출간학술지 등을 기재함.

- 농촌 여성은 농촌산업 변화와 함께 남성농업인의 보조적 역할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재조명되며,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의 주요 대상은 여성농업인으로 나타남
- 일반농의 경우, 여성농업인은 50대 중반 기혼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이들의 주 영농활동은 벼농사와 채소류, 과수, 화훼 등으로 나타남. 여성농업인 명의로 된 농지 소유는 상대적으로 적고, 농업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도가 낮아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특성과 정책욕구를 살펴보면, 보육과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서 30대 여성농업인은 자녀양육과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0~50대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농촌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와 다양화의 필요에 따른 전문 인력화와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 변화를 제안함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연구들은 농사 이외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와 향후 희망 농외소득활동 유형을 탐색함
- 절반 이상이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 활동을 위한 교육 참여 의향이 있었음. 농산물 생산 교육에 비해 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 판매 및 가공기술 교육, 마케팅 등 교육을 선호했으며, 선호 취·창업 분야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농산물 가공 분야, 농촌관광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마을 및 농촌체험 마을 지원,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제도, 농업경영주 등록, 농기계임대 및 교육, 농협복수조합원제도 등은 인지도가 낮은 정책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주택구입임차지원, 농촌생활문화교육, 농업창업 투자자금 융자, 사전귀농 정보제공, 다양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지원 등으로 나타남

- 30대와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은 농업인 정책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30대는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제도와 농촌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중장년층 여성농업인의 경우, 유통판매나 마케팅 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교육 및 취·창업 정보와 기회 부족이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 전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경옥·정유리, 2016)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살펴본 결과, 농업·농촌사업 변화와 함께 여성농업인, 특히 40대와 50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을 강조함
- 고령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취약, 노동력 보조, 건강상 문제 등이 증가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됨. 60대 이상 노년층은 은퇴 준비, 영농규모 축소, 소규모 출하에 따른 노후준비 부족과 경제적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선의 필요성(시기, 장소, 내용 등), 일·가정 부담 경감, 생산·가공·유통 판매, 6차 산업 농식품 경영 교육과정을 제시함.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의 직업 정체성과 자존감의 증진과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표 1- 2〉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연구동향

저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강종원 (2017)	· 여성농업인의 특성과 실태 (정보정도, 농업인 지위, 경제특성, 복지수요, 지역사회활동 등) · 여성농업인 육성 전략	· 강원도 여성농업인 291명	· 설문조사
강혜정 (2011)	· 배우자의 농외활동 참여 여부와 여성농업인의 농외노동시간 간의 관계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와 투입시간 결정 요인(개인 및 가구특성, 영농특성)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원자료(기혼 여성농업인 1,124명)	· 통계원자료분석
강혜정 (2013)	· 전업농인 농가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 정도 및 결정요인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원자료 (기혼 여성 전업농 908명)	· 통계원자료분석
안석·엄진영· 박지연 (2019)	· 일반 여성농업인, 다문화 여성 및 귀농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실태(경제사회활동, 교육 및 복지, 정책수요)	· 농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 농업인 2,049명 (일반 여성농업인 1,534명, 다문화여성 248명, 귀농 여성농업인 267명)	· 설문조사
엄진영·최용호· 박지연 (2018)	·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영농활동 실태 및 정책 제감도·수요	· 통계 원자료(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청년, 중년, 노년 여성농업인	· 통계원자료분석 · 면접조사
정형욱·최운선· 최지현 (2001)	· 농촌여성 농업 및 농업이외 일자리 특성 · 농촌사회 및 사업체 특성과 농업일자리 발굴	· 농촌여성 관련 기관 및 사업체 관련자 14명 · 농촌여성 관련 단체 대의원 180명	·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
조경욱·정유리 (2016)	· 전북 여성농업인 특성(영농 및 농외소득활동, 교육 및 복지, 지역사회, 정책욕구 등) · 여성농업인 정책 개선방안	· 만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여성농업인 295명	· 설문조사
태희원 (2015)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농촌형 새일센터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 · 농촌형 새일센터 담당자 및 취업설계사	· 사례조사 · 행정자료 분석 · 심층면접
허미영 (2015)	· 여성농업인의 일자리 특성 및 농업기반 일자리 창출 가능성 파악 ·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방안	· 여성농업인 193명 · 농업서비스 종사자 10명	· 설문조사 · 심층면접조사

자료 : 참고문헌에 연구제목, 출간학술지 등을 기재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연구들은 이들이 주로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참여에 대한 연구는 영농활동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또한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연구는 4개로, 농촌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임
- 이 연구들은 결혼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가족농에 참여하고 있으나, 영농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 능력, 가족지지 여부, 일·가정 양립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농업인력 양성사업 추진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됨
-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가족의 지지가 높으며, 본국에서 영농활동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영농교육 및 영농활동 참여 의향이 높았으며, 가공·유통 교육 및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양성과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양순미 외 연구(2010)는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농업에 대한 이해, 농촌문화와 지역공동체 활동 적응이 향상된 결과를 제시함
-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은 개인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농업인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농업이론 및 기술, 생활 적응 기술, 농촌사회 사회관계 및 활동,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어 농업 전문인력 육성 가능성을 제시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농업 관련 산업의 인력을 넘어 이들 여성의 일상생활 공간인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주요 인력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음.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은 농업기반 일자리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광의의 일자리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표 1- 3〉 결혼이주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연구동향

저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강혜정 (2009)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영농활동 및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노동시간 결정 요인	· 남편이 농업인이 이주여성 402명	· 설문조사
김복태·박성정· 문미경·김돌순· 최천근 (2016)	· 결혼이주여성 농업인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성공사례분석 · 전문인력화 정책과제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혼 이민여성 17,109명 · 5년 이상 거주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 결혼이민여성 및 이해관계자 21명)	· 통계원자료분석 · 초점집단면접조사
안석·엄진영· 박지연 (2019)	· 결혼이주여성 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 실태, 정책 수요 및 과제	· 농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 농업인 2,049명 (일반 여성농업인 1,534명, 다문화여성 248명, 귀농 여성농업인 267명)	· 설문조사
양순미·김승희· 이미화·김미숙 (2010)	·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방향	· 여성결혼이민자, 후견인, 관리자 15명	· 심층면접조사

자료 : 참고문헌에 연구제목, 출간학술지 등을 기재함.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농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환경의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는 현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강화되고 있음
- 농업·농촌사회 일자리가 다양화되면서 여성의 취·창업의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의 노동력은 여전히 농업생산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등 불안정하고 노동집약적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전북 농촌사회의 경제적 활력 유지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적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전북 농업·농촌사회를 만들고자 함
-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전북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수혜 정책에 서 양질의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참여와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가능한 주체로 양성 가능한 생산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함
- 중앙 및 전라북도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정책 동향을 통해 농촌사회의 일자리 환경을 살펴보고,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제인력 이슈 관련 선행연구, 행정자료, 정책 동향을 근거로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전라북도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과의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다문화적 관점에서 농촌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함. 이는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 노동시장의 진입과정 및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 경험과 경제활동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와 함께, 전문가자문을 통해 농업·농촌 패러다임 변화 및 다문화관점에서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통한 인력 육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활력과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연구 추진체계

○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추진 절차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음

〈그림1-1〉 연구 추진체계

구분	주요내용	연구방법
1단계 문제익식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주목 배경 이유 · 농촌 결혼이주여성 농촌사회 일자리 종합적 파악 필요	문제익식 정리
2단계 논리검토	·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현황 및 정책 동향 · 농촌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현황 · 농촌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 및 동향	선행연구 행정자료 내용검토
3단계 면접조사	·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궤적 및 일자리 특성 ·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의미 · 기관별 관리자 및 실무자의 결혼이주여성 경제 역량 및 농촌사회 일자리 환경 특성 파악	면접조사
4단계 자원방안 구상	· 정책방향과 주요 전략 제시 ·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 대표 방안 제시	방향구상 방안제안
5단계 정책제안	·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 정책사업	사업제시 자료제시

2

장

전북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정책

Jeonbuk Institute

-
1.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 현황
 2. 농촌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정책

제2장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정책

1.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 현황

가. 전라북도 농업·농촌사회 일반현황

-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 모두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임. 농가 수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109만 가구에서 2018년 102만 가구로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2015년 약 257만 명에서 2018년 232만 명으로 감소함
- 전북 성별 농가인구는 2018년 기준 남성은 1,135명, 여성은 1,185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92%로 나타남. 지난 4년 간 전체 전북 농가인구의 여성 비율은 50%를 웃돌음

〈표 2-1〉 농가 수 및 농가인구(2015~2018년)

(단위 : 천 가구, 천 명,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가 수	1,089	1,068	1,042	1,021
총 가구 대비(%)	5.56	5.39	5.17	4.98
농가인구	2,569	2,496	2,422	2,315
남성	1,265	1,222	1,184	1,130
여성	1,305	1,275	1,238	1,185
총 인구 대비(%)	5.03	4.87	4.71	4.48

자료: 통계청(KOSIS), 「농림어업조사」, 각 년도.

- 연령별 전국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744,9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6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 고령농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북의 경우, 전국 연령별 분포와 유사하게 7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69,680명으로 가장 높았음. 60대, 50대 순으로 농가인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북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됨

- 전국 및 전북 모두 50대 이상 농가 인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여성 농가인구 중 50대 이상은 전국 78.1%, 전북 78.5%로 여성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

〈표 2-2〉 전국 및 전북 연령별 농가인구(2018년)

(단위 : 명)

연령구분	전국			전북		
	농가인구(계)	남성	여성	농가인구(계)	남성	여성
20세 미만	169,842	88,537	81,305	16,483	9,040	7,444
20~29세	114,610	62,795	51,815	8,640	4,635	4,005
30~39세	105,711	59,287	46,424	8,908	4,778	4,129
40~49세	165,787	86,293	79,496	15,548	8,298	7,249
50~59세	408,859	192,050	216,809	34,687	16,706	17,981
60~69세	605,239	288,645	316,595	54,655	25,355	29,300
70세 이상	744,933	352,828	392,105	69,680	33,574	36,106

자료: 통계청(KOSIS), 「농림어업조사(2018년)」.

- 전라북도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7.8%(2017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여, 기타 서비스업(33.5%), 제조업(2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자리유형 및 종사자수의 경우, 2018년 기준 주종사산업이 농업은 141,763명으로 집계됨. 주종사산업으로 농업으로 하는 농가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산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으로 나타났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농가인구는 18,675명으로 집계됨
- 성별 직종 및 종사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은 농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직종을 살펴보면, 농업 종사자가 73,17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11,658명으로 나타남

〈표 2-3〉 전국 및 전라북도 주종사산업별 농가인구(2018년)

(단위 : 명)

산업구분	전국			전북		
	15세 이상 인구	남성	여성	15세 이상 인구	남성	여성
합계	2,206,122	1,074,343	1,131,779	197,388	96,314	101,075
농업	1,463,180	692,132	771,048	141,763	68,592	73,171
임업, 어업	17,503	10,430	7,073	808	457	351
제조업	69,182	45,648	23,534	3,677	2,477	1,199
건설업	48,123	43,919	4,205	4,471	4,093	378
도,소매업	59,167	27,595	31,572	3,916	1,716	2,200
숙박, 음식업	54,154	16,190	37,964	3,395	920	2,475
기타산업	276,289	153,792	122,496	20,683	11,040	9,643
종사인합	218,524	84,637	133,887	18,675	7,017	11,658

자료: 통계청(KOSIS), 「농림어업조사(2018년)」.

나.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 현황

- 전북 다문화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총 334,856가구로 집계 되었으며 2015년(299,241가구)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전라북도도 2018년 기준 12,103가구로 전국대비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도 별 추세를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5년 간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5,0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됨. 결혼이주여성의 규모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전북 시도별 결혼이주여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5,384명 중 전주시가 1,16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군산시(855명)와 익산시(855명), 정읍시(425명)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무주군(104명), 장수군(109명), 임실군(121명), 진안군(128명), 순창군(147명) 등 결혼이주여성 분포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 2-4〉 전북 결혼 이주여성 현황(2013~2017년)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라북도	5,540	5,569	5,345	5,380	5,384
전주시	1,137	1,147	1,109	1,125	1,160
군산시	799	852	805	828	855
익산시	952	938	878	891	855
정읍시	396	393	418	425	425
남원시	348	341	337	332	333
김제시	353	335	334	325	314
완주군	349	357	349	350	348
진안군	149	137	119	117	128
무주군	113	116	111	102	104
장수군	133	129	123	119	109
임실군	137	138	118	116	121
순창군	167	153	149	143	147
고창군	287	311	269	287	269
부안군	220	222	226	220	216

주: 결혼이민자(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여성만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각 년도.

- 설동훈 외(2015)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도농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동부에 사는 비율이 53.1%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비율(4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적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여성은 3,21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국 비한국계(2,467명), 필리핀(1,098명), 중국 한국계(1,039명) 등 순으로 집계됨
- 전체 결혼이주여성(9,452) 중 34.0%를 차지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54.4%가 읍·면부에 거주하여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467명의 중국 비한국계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67.5%가 동부에 거주하여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읍면부 거주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부 거주비율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 한국계와 우즈베키스탄으로 나타남

- 동부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 비율이 높은 출신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로 나타남

〈표 2-5〉 전북 국적별 결혼이주여성의 도농 거주지역 분포(2015년 기준)

(단위 : %)

국적별	응답자 수(명)	동부	읍·면부	합계
합계	9,452	53.1	46.9	100.0
베트남	3,210	45.6	54.4	100.0
중국 비한국계	2,467	67.5	32.5	100.0
중국 한국계	1,039	57.5	42.5	100.0
필리핀	1,098	46.7	53.3	100.0
일본	600	43.3	56.7	100.0
캄보디아	503	49.1	50.9	100.0
태국	116	31.9	68.1	100.0
우즈베키스탄	99	65.7	34.3	100.0
몽골	96	44.8	55.2	100.0
기타	224	59.4	40.6	100.0

주: 결혼이민자(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혼인귀화자(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여성을 포함.
 자료: 설동훈·박신규·이순미·박순영(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 체류기간별 도농 분포를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 2,321명의 52.3%는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어 동부 거주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9년 이하인 결혼이주여성은 읍면부보다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년 이하의 경우 동부 거주 비율은 57% 이상으로 나타남
- 국제결혼으로 전북에 정착한 초기 결혼이주여성은 읍면부로, 최근에 전북에 정착한 이들은 동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전북 체류기간별 도농 거주지역 분포(2015년 기준)

(단위 : %)

국적별	응답자 수(명)	동부	읍·면부	합계
합계	9,452	53.1	46.9	100.0
2년 미만	1,268	57.2	42.8	100.0
2~4년	2,211	57.8	42.2	100.0
5~9년	3,652	52.4	47.6	100.0
10년 이상	2,321	47.7	52.3	100.0

주: 결혼이민자(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혼인귀화자(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여성을 포함.
 자료: 설동훈·박신규·이순미·박순영(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 전국 및 전북 모두 다문화 농가·농가인구는 2017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들어 다소 증가함. 전국 대비 전북의 다문화 농가 비중은 2018년 기준 1.24% 수준이며, 농가인구의 경우 2.41% 수준으로 나타남

〈표 2-7〉 전국 및 전북 다문화 농가 수 및 농가인구(2015~2018년)

(단위 : 가구, 명, %)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다문화 농가 수	14,697	12,827	12,386	12,646
전라북도	1,930	1,667	1,589	1,651
총 농가 수 대비(%)	1.31	1.20	1.19	1.24
전국 다문화 농가인구	66,156	57,202	55,051	55,782
전라북도	9,051	7,688	7,180	7,419
총 농가인구 대비(%)	2.40	2.29	2.27	2.41

주: 2015년 현황의 경우 농업총조사에서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누락됨.
 자료: 통계청(KOSIS), 「농림어업조사」, 각 년도.

다. 농촌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 전국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자(66.44%)와 실업자(3.82%)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는 70.3%이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29.74%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67.9%로, 결혼이주여성 중 현재 경제활동 참여자는 65.75%, 비참여자는 2.14%로 나타남.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32.11%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북은 32.1%로 전국(2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 전국 및 전북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

	전국	전북
경제활동인구	70.26	67.89
취업자	66.44	65.75
실업자	3.82	2.14
비 경제활동인구	29.74	32.11

주: 결혼이민자 및 기타귀화자에 대해서 성별구분 없이 집계한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8)」.

- 2015년 기준 도내 도농 결혼이주여성 직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5,563명 중 기타·단순 노무자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음. 도내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11.4%로 서비스 종사자와 기타를 제외하고 결혼이주여성 직종으로 높게 나타남
 - 동부의 경우, 기타·단순 노무자(22.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21.5%)로 나타남
 - 읍·면부 또한 기타·단순 노무자(27.1%)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농림어업 종사자(20.7%)로 집계됨

〈표 2-9〉 전북 도농 결혼이주여성 직종 분포(2015년 기준)

(단위 : %)

도시· 농촌	응답자 수(명)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 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 노무자	기타 단순 노무자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계
합계	5,563	19.6	6.8	11.4	4.0	2.4	5.3	25.0	2.3	10.0	0.3	12.9	100.0
동부	2,776	21.5	8.5	2.1	5.8	2.8	5.3	22.8	2.3	14.5	0.3	14.1	100.0
읍면부	2,787	17.8	5.0	20.7	2.3	2.1	5.3	27.1	2.2	5.5	0.3	11.7	100.0

주: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여성 중 5,563명이 응답함.

자료: 설동훈·박신규·이순미·박순영(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 2015년 전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 결혼이주여성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199만 원(4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50~99만 원(26.7%), 50만 원 미만(15.4%) 등 순으로 나타남.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 89.2%로, 소득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개 시·군 모두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40~50%가 100~199만원으로 나타남. 완주군의 경우, 월평균 소득 200~299만 원인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10.4%로 나타나 그 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의향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91.1%)가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희망률은 도내 시·군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 취업희망률은 80.9~97.8%로 나타났으며, 이 중 향후 취업 의향이 가장 높은 지역은 97.8%인 무주군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수군(95.9%), 전주시(94.2%), 군산시(94.0%) 등 순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85.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결혼이주여성 본인의 향후 취업 희망률(9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향후 취업 희망(2015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배우자	
	합계	취업희망률	합계	취업희망률
전라북도	4,789	91.1	1,719	85.1
전주시	1,069	94.2	302	90.2
군산시	779	94.0	324	89.9
익산시	870	90.9	303	89.5
정읍시	351	80.9	121	67.6
남원시	253	89.3	93	78.0
김제시	266	81.4	113	76.4
완주군	299	93.6	144	89.6
진안군	72	89.3	27	81.5
무주군	96	97.8	50	88.2
장수군	101	95.9	41	75.1
임실군	99	93.0	39	95.8
순창군	115	88.2	41	76.3
고창군	217	90.3	43	79.7
부안군	201	90.4	77	73.9

주: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여성 중 4,789명이 응답함.

자료: 설동훈·박신규·이순미·박순영(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최근 3년간 참여한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73.0%)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한국문화·농촌사회 이해 및 적응 교육인 ‘한국요리 강습(42.9%)’, ‘전통문화 교육(23.5%)’, ‘생활상담(17.7%)’ 등과 취미·여가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취미·여가·상담(43.5%)’, ‘컴퓨터 교육(34.5%)’, ‘자동차 운전(15.0%)’, ‘외국어교육(9.3%)’ 등으로 나타남
- 가족생활과 관련된 교육의 경우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제공(32.3%)’, ‘임신 및 출산 교육(19.5%)’, ‘부부교실 및 가족 캠프(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부업·자격증 취득(10.6%)’,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6.2%)’,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5.3%)’, ‘농산물 가공 기술(5.3%)’ 순으로 나타남.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최근 3년간 교육 경험

(단위 :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한국어 교육	73.0	부부교실 및 가족캠프	12.4
한국요리 강습	42.9	부업/자격증 취득	10.6
취미/여가/상담	42.5	외국어 교육(영어, 일어 등)	9.3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34.5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6.2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제공	32.3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	5.3
전통문화 교육	23.5	농산물 가공 기술	5.3
지역생활 안내	20.4	소형 농기계 작동법	3.1
임신 및 출산교육	19.5	적물 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2.7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	19.0	농촌관광사업 운영	0.9
생활 상담	17.7	시설 자동화 설비 운전	0.4
자동차 운전	15.0	기타	0.4

주: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226명의 중복응답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결혼이주여성이 최근 3년간 받은 교육 중에서 유익하다고 응답한 교육 중 ‘한국어 교육(24.3%)’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취미·여가·교양(13.4%)’, ‘컴퓨터 교육(11.6%)’, ‘한국요리 강습(9.4%)’ 등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관련 교육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3.0%가 ‘부업·자격증 취득’ 교육이 유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관련 교육은 ‘농산물 가공기술(1.8%)’,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1.7%)’,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1.5%)’, ‘소형 농기계 작동법(1.0%)’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이 15년 이상 여성을 제외한 15년 미만 여성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교육은 ‘한국어’로 나타남. 그 외 교육 중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결혼이주여성은 ‘취미·여가·교양(14.3%)’과 ‘컴퓨터 교육(12.8%)’ 순으로 응답함
- 거주기간이 5~7년 미만인 여성은 ‘취미·여가·교양(15.2%)’, ‘컴퓨터 교육(12.8%)’, ‘한국요리 강습(12.8%)’으로 나타났으며, 7~10년 미만은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 제공(12.0%)’, ‘컴퓨터교육(11.0%)’, ‘한국요리 강습(10.0%)’, ‘임신 및 출산으로 응답함

- 거주기간이 10~15년 미만 여성은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 제공(11.4%)’, ‘취미·여가·교양(8.9%)’, ‘한국요리 강습(6.3%)’ 순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상 여성은 ‘취미·여가·교양(26.5%)’, ‘자동차 운전(20.6%)’, ‘컴퓨터 교육(14.7%)’, ‘한국요리 강습(11.8%)’ 순으로 응답함
- 취·창업 관련 교육을 살펴보면, ‘부업/자격증 취득’은 거주기간 5년 미만 여성은 4.3%로 5년 이상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5년 미만은 ‘외국어교육(3.8%)’으로 나타남
- ‘농산물 가공 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 ‘소형 농기계 작동법’을 포함한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관련 교육의 경우, 거주기간 7~10년 미만 여성은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3.0%)’,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3.0%)’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 10~15년 여성의 만족 수준은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6.3%)’, ‘소형 농기계 작동법(6.3%)’, ‘농산물 가공 기술(2.5%)’,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2.5%)’으로 나타났으며 ‘농기계 작동법’ 교육에 관심과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2-12〉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최근 3년간 교육 중 유익한 교육

(단위 : %)

	한국어 교육	취미/여가/교양	컴퓨터 교육	한국요리 강습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제공	자동차 운전
전체	24.3	13.4	11.6	9.4	7.9	4.4
5년 미만	31.8	14.3	12.8	8.1	7.0	2.7
5~7년 미만	20.8	15.2	12.8	12.8	5.6	2.4
7~10년 미만	20.0	8.0	11.0	10.0	12.0	4.0
10~15년 미만	20.3	8.9	5.1	6.3	11.4	6.3
15년 이상	2.9	26.5	14.7	11.8	2.9	20.6
	지역생활 안내	생활 상담	임신 및 출산 교육	부업/자격증 취득	전통문화 교육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
전체	3.9	3.2	3.2	3.0	2.9	2.2
5년 미만	1.9	3.1	1.6	4.3	3.9	1.9
5~7년 미만	4.8	3.2	3.2	2.4	4.0	3.2
7~10년 미만	6.0	3.0	10.0	1.0	2.0	1.0
10~15년 미만	6.3	1.3	1.3	2.5	0.0	3.8
15년 이상	2.9	8.8	0.0	2.9	0.0	0.0
	부부교실 및 가족캠프	외국어 교육	농산물 가공 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	소형 농기계 작동법
전체	2.0	1.8	1.7	1.7	1.5	1.0
5년 미만	1.9	1.2	1.9	1.2	0.0	0.0
5~7년 미만	4.0	2.4	0.8	1.6	0.8	0.0
7~10년 미만	2.0	2.0	1.0	3.0	3.0	1.0
10~15년 미만	0.0	3.8	2.5	2.5	6.3	6.3
15년 이상	0.0	0.0	2.9	0.0	0.0	0.0

주: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226명의 1~3순위 중복응답의 가중적용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과 관련 기관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98.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센터(89.3%)’, ‘건강가정지원센터(82.5%)’,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72.6%)’, ‘사회복지관(69.4%)’, ‘농협(62.7%)’ 등 순으로 나타남
- 인지도가 낮은 기관은 ‘중앙정부(60.3%)’, ‘지방정부(57.5%)’, ‘여성농업인센터(51.2%)’로 5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임

-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 빈도가 높은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96.4%)’로, ‘월 1회 이상(37.7%)’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이주여성의 ‘주민센터(읍·면·동)’ 이용 빈도는 ‘연 1~2회(22.7%)’, ‘연 3~4회(21.8%)’의 비중이 높고, ‘농협’은 ‘연 1~2회(13.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2-13〉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관련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단위 : %)

	모름	알지만 이용 없음	잘 알고 이용하는 경우 이용 횟수				
			연 1~2회	연 3~4회	연 5~6회	연 7~10회	월 1회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3.6	4.8	17.5	19.0	15.9	37.7
건강가정지원센터	17.5	27.0	16.7	24.2	7.1	2.0	5.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7.4	50.0	8.7	9.1	2.0	0.8	2.0
주민센터(읍·면·동)	10.7	20.2	33.7	21.8	5.2	4.4	4.0
정부지원 여성센터	42.1	46.0	4.4	4.8	1.2	0.0	1.6
고용센터	45.6	41.7	7.1	3.6	1.2	0.0	0.8
사회복지관	30.6	36.5	11.5	13.9	3.6	0.8	3.2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48.4	34.5	5.2	6.7	4.0	0.4	0.8
중앙정부	60.3	36.9	0.8	0.8	0.0	0.0	1.2
지방정부	57.5	37.7	2.8	1.2	0.4	0.0	0.4
농업기술센터	46.8	45.6	3.2	2.8	0.4	0.4	0.8
농협	37.3	37.7	13.9	4.4	4.4	1.2	1.2
여성농업인단체	51.2	39.7	4.0	3.2	0.4	0.0	1.6

주: 중앙정부(농식품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도 및 시군 농정과), 농협(지역문화복지센터), 여성농업인 단체(생활개선회, 농가주부부모임, 한여농, 전여농) 등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은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36.6%)’, ‘(읍·면·동)주민센터(19.5%)’, ‘건강가족지원센터(16.9%)’ 등 순으로 나타남. 농촌 여성 또는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관련 기관의 이용 및 도움을 받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4〉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는 기관

(단위 :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6.6	고용센터	1.4
(읍·면·동)주민센터	19.5	정부지원 여성센터	0.9
건강가정지원센터	16.9	지방정부	0.6
사회복지관	8.7	농업기술센터	0.5
농협(지역문화복지센터 등)	6.7	여성농업인단체	0.5
이주여성 긴급자우너센터	4.0	중앙정부	0.2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3.6	없음	0.3

주: 1,2,3순위 중복응답의 가중적용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 농촌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정책

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1)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3대 목표, 5개 대과제, 17개 중과제, 70개 소과제를 설정함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은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과제 중 ‘자립역량강화’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음. 일자리 지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한국어교육과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를 통한 학력취득을 우선으로 함
-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다양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취업기초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새일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취업기초소양 교육 및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함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집단상담,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취·창업을 위한 역량강화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 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정착단계별 농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단위 농촌여성조직체 내 결혼이주여성 분과모임을 통해 기초농업기술, 전통·향토음식, 농산물가공 등 활동을 지원함.
-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영농교육과 함께 가정경영, 생활문화, 영농애로사항 등과 관련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또는 내국인 여성농업인 멘토링 결연을 지원함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창업훈련,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컨설팅 등 창업서비스, 여성기업 확인 지원, 결혼이민자 기업의 공공구매 접근 용이성, 창세일센터 내 창업매니저 배치 등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 및 결혼이주여성의 (예비)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 모두가 존중 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 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 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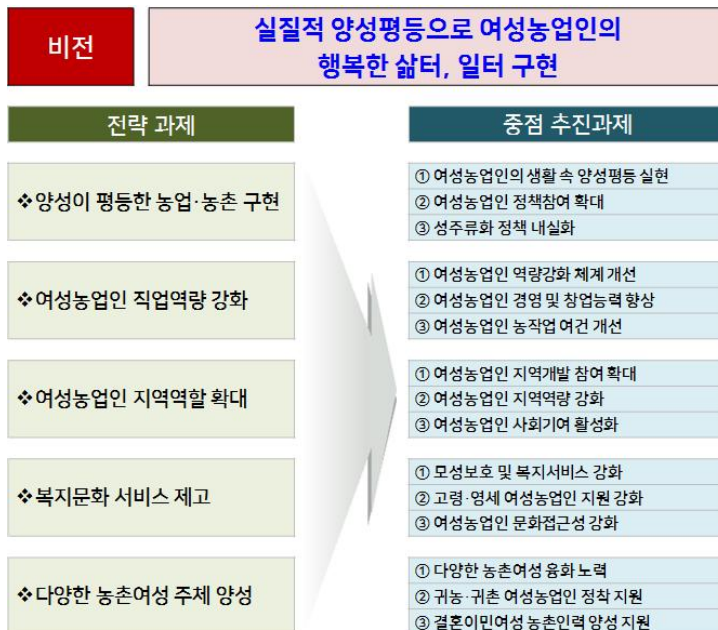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농촌공동체 내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 여성의 주체화 등을 목표로 수립·추진되어 왔음
- 기본계획은 5개 전략과제, 15개 중점추진과제가 설정·제시됨. 5대 전략 과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임
- 농업인으로서의 직업 역량강화, 농촌 지역사회 리더 육성, 농촌여성의 주체화 정책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직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함)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정보 관리, 교육과정 운영·관리함
- 농촌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농산업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요 맞춤형 교육 개발, 농촌형 새일센터 설치·운영과 발굴·육성, 귀농·귀촌인의 정착, 결혼이주여성의 영농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농촌 사회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 강화 및 주체화를 위해 경영 및 창업능력 증진 지원사업인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농식품교육원)’, ‘여성농업인 임원 농기계교육(농진청)’, ‘여성농업인 혁신인재비즈니스 아카데미(농정원)’, ‘회계교육(농정원)’, ‘농협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농정원)’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분야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사회 리더 육성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정책위원회 참여, 지역개발사업, 마을리더 과정, 재능나눔사업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인 여성 귀농·귀촌인의 농촌공동체에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지역단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농업인력 양성과 함께,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여성대학, 기초 농업교육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하여 농업인력 육성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2-2〉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다. 중앙행정기관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 및 직무역량강화, 지역사회 리더 육성, 주체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 자립역량강화,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사회참여 기회 참여로 구분하여 수립·추진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2019년 기준으로 총 11개, 221,29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편성함
-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은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새일센터는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선, 맞춤형 진로상담,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증진,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직업상담(개별·집단상담, 취업정보제공)을 진행함. 전문기술 및 기업맞춤형 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과정과 함께 직업윤리 이해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교육(직무훈련, 새일역량교육)을 통해 역량에 맞는 일자리 탐색 및 연계를 위한 취업연계, 인터뷰를 지원함.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

여성의 취업을 위한 모든 것!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I 직업상담 개별·집단상담, 취업정보제공 ① 개별상담 개별상담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원이 경력과 학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로상담을 해 드립니다. ②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③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여성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일자리 등)와 직업훈련교육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II 직업훈련교육 직무훈련, 새일역량교육 ① 직무훈련 전문기술/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새일센터에서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② 새일역량교육 직업윤리, 직업의식,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정 (5일이나)을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센터마다 다양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gef.go.kr)
 III 취업연계 취업연계, 인턴십 지원 ① 취업연계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 현황, 경력사항 등을 바탕으로 취업을 연계 해 드립니다. 필요시 취업설계가 면접에 동행해 드립니다. ② 인턴십 지원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인턴기간(3개월)동안 기업에 인턴급여의 일부(60만원) 지원	 IV 사후관리 지원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기업 문화조성 ①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취업후에도 직장적응교육, 멘토링 등으로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②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지원 등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맞춤형서비스(다문화가족), http://www.mogef.go.kr/cs/mcf/cs_mcf_f004.do)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기초소양교육,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중언어강사, 다문화이해 강사), 취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결혼이주여성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직업훈련교육 특화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표 2-15〉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구분	정책과제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자립역량 강화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	-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3,473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	-	취업기초소양교육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	-	다문화새일역량 교재 및 프로그램 보급
	결혼이민자 적합일자리 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	기업수요맞춤형 새일센터 취·창업훈련 개발 및 운영
	결혼이민자 적합일자리 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	취업연계지원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검정 실시	-	고용노동부와 공동주관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	396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창업 지속 추진
사회참여 기회 확대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비예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	-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	-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정책은 취·창업을 위한 역량과 취·창업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자리 정책은 취·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국어 능력과 학력취득, 직업교육훈련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한국어 교육 지원의 경우,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등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농촌 결혼이주여성 특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농업인력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책지원사업'과 농촌진흥청의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있음
- 농촌 결혼이주여성 직접 대상 일자리 지원 사업은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지원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 전문영농교육 사업'과 '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 사업'으로, 지역 농협과 협력하여 영농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 지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자녀의 처우)」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농업기술 교육에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 제공하고 있음
- 기초영농교육사업은 한국농촌사회 이해와 함께 농업의 기초 및 전문 지식과 기술을 중심한 프로그램임. 전문영농교육사업은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생산에 관한 주작물 이론과 실습, 농기계 사용으로 농작업 역량 강화, 가공산업 취·창업을 위한 한국 음식 관련 이론, 실습 교육과 함께 판매자로서의 비즈니스 교육 등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1:1맞춤 농업교육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영농교육 연속성 보장을 위해 한국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결혼이주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선정하여 멘티 결혼이주여성의 여성농업인으로의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결혼이주여성의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농촌 여성의 핵심리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표 2-16〉 중앙행정기관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소관부처	정책과제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교육부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	22	자립역량강화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 (이민자 네트워크 활성화)	249 151	자립역량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운영)	550 2,200	자립역량강화 무지개다리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 (기초, 전문 영농교육)	1,666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	-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 적합일자리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11,656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
	결혼이민자 적합일자리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1,853	내일배움카드제
	결혼이민자 적합일자리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370,96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검정 실시	-	여성가족부와 공동주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취·창업지원	81,847	여성 창업입문과정 운영, 일자리창출 사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	4,957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기업 경영안정 지원
농촌진흥청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	70	사회참여 기대 확대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

- 농업교육사업은 크게 ‘기초·전문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다문화가족 농
촌정착지원과정’으로 구분됨. ‘1:1 맞춤형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사업은 2009년, ‘기초농업교육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사업인 ‘기초·전문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
교육’ 추진주체는 농업중앙회이며, 지역농협은 본 사업의 운영주체임. 기초농업교
육과정은 한국어교육, 한국 및 농촌사회 적응훈련교육과 함께 농업일반 및 농업기
술교육(농기계사용, 농산물 가공, SNS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기법 등) 등으로 구
성되어 있음

- 1:1 맞춤형 농업교육과정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농촌 사회에서 1년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임. 결혼이주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여성농업인 멘토가 멘티의 영농 지식과 기술을 반영한 농기술, 작물별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

〈표 2-17〉 결혼이주여성 농업교육사업

지원사업	추진주체 (운영기관)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목표인원 (명)	예산 (백만원)
기초·전문농업교육	농업중앙회 (지역농협)	·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 수료 · 농업일반 및 농기계 사용법, 현장 체험, 농산물 가공실습, SNS활용 농산물 판매기법, 가족이해교육 등	2,480	1,666
1:1 맞춤형 농업교육	농업중앙회 (지역농협)	· 한국어 소통 가능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자 · 교육대상 맞춤형 전문 여성농업인의 멘토링(농기계 안전교육, 작물별 교육·친환경, 유기농법, 포장법 등)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도농협동연수원	· 농촌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 한국 및 농촌 역사 문화 이해·체험, 농업·농촌 이해도 제고,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교육등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2014년부터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음. 2019년 9월 기준 전국 6개소(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제주 1)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농촌 거주 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농촌사회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반직업교육훈련과정에 비해 우선적으로 농업 및 6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함
- 주요 교육과정은 리더십교육, 유통·앱·IT 관련 교육, 농촌형 창업교육(영농법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기업 등 설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인턴근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여 취업 후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본 사업은 새일센터 구직 등록된 미취업 결혼이주여성도 지원 가능함

- 전라북도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농어촌형 새일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농촌형 일자리 교육지원 사업으로 '로컬외식조리 취·창업 양성과정'이 2015년에 운영됨

〈표 2-18〉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도	시·군	새일센터	과정	내용
강원	영월군	영월새일센터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관리자 과정	· 사이버거래이론 · 농특산물 판매 현장 실습
충북	영동군	영동새일센터	과일발효전문가 양성과정	· 지역 과일을 이용한 발효 가공식품 개발(수제맥주, 수제 막걸리, 식초, 장류 등)
충남	부여군	부여새일센터	농가법상 조리사 전문 양성과정	· 로컬푸드를 재료로 한 음식 조리사 양성교육
			팜스테이너 양성과정	·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형 문화행사 기획 교육
	홍성군	홍성새일센터	친환경 농산물 활용 케이터링 창업교육	· 케이터링 이해와 푸드 및 플레이팅 교육
전북	완주군	완주새일센터	로컬외식조리 취·창업 양성과정	· 지역농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 및 가공품 이해 및 교육, 창업지원 등
제주	서귀포시	한라새일센터	향토음식개발&한식조리사과정	· 향토음식 관련 창업, 취업
			농산물 SNS홍보마케터 전문과정	· 제주 친환경 농산물 판로망 확대를 위한 SNS 관련 교육
			농산물 창업가 과정	· 온라인 직거래유통 등 창업 교육, 지역농산물 활용 창업
			농업경제 사무실무자양성 및 세무회계과정	· 회계업무를 위한 전산화계프로그램 활용교육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종사 희망자에 한해 농업인 육성교육과 농업인을 위한 기술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와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여성 특화 사업은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CEO 교육 과정과 결혼이주여성과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농산물 판매·가공에 대한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음

〈표 2-19〉 농업기술센터 교육사업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농업생산형	농업인	품목별 전문재배기술, 친환경농업
		농업기계교육, 첨단농업기계자격 및 면허취득교육
농업경영형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e-비즈니스 활성화지원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 운영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
농업창업형	농업인	농산물가공의 이론과 기술교육, 농산물 가공사업 품목 개발, 창업 관련 교육 등
농업인대학	농업종사자 농업종사 희망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해와 과학영농 기술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여성농업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농업 및 농산물 판매·가공에 대한 이해 및 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등

라. 전라북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 전북도 자체사업은 전북도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의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대외협력국 국제교류과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과 업체 희망수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를 고용하여, 현지시장 조사, 정보수집, 바이어 발굴 업무를 수행함.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통번역을 지원하는 무역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지역적 특성과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어교육과 함께 직업교육·훈련 관련 교육,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 기회를 제공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연계 지원하고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센터에 등록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인턴 과정, 지도자 양성 교육, 국내거주 외국의료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김제시, 정읍시, 순창군은 자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다문화수용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임.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강사 교육과정 수료 후, 지역사회의 다문화 강사 및 어학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린이들의 다문화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 글로벌한 감각 형성에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표 2-20〉 전라북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자체사업)

정책과제	담당부서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김제시 정읍시 순창군	119	· 지역아동센터 어학강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보조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의 보조 상담사	김제시 정읍시(신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5	· 해외진출 희망 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바이어 발굴, 정보수집, 통번역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대외협력국 국제교류과	160	·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구직자 발굴 · 기업수요 맞춤형 새일센터 취·창업 훈련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I.

마. 시사점

- 전라북도 농촌사회는 고령화와 인구과소화로 인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농촌사회의 생산인구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성별과 연령별 농촌사회의 인구구조는 여성과 고령층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며, 현재 농촌사회의 생산인구는 고령농의 여성화가 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사회의 구성원의 변화를 의미하며,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사회의 인력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적응, 통합될 대상으로 인식되어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은 취미·교양, 한국 문화 적응,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등의 적응 및 통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사회의 생산인구에서 주변인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관련 지원은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논의와 정책과 다소 부족한 실정임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와 장기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희망하는 일자리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국에서 직업경력 및 학력은 반영되지 않은 직업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음
- 이중언어와 다문화배경을 강점으로 활용한 일자리를 주로 발굴되며, 결혼이주여성의 선택가능한 일자리 유형은 다소 한정되며, 일자리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 접근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주변인에서 주체로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촌사회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자리 잡기 위하여, 이를 위한 일자리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지원은 매우 미비한 상태임
- 또한,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 지원정책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이들이 농촌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은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최근 농촌사회의 개인의 삶의 공간으로 농업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관련 일자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농정 패러다임과 농촌사회 일자리 생태계 변화 시점에서 사회문화, 경제, 복지 등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농촌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과 공동체 유지·성장을 위한 농촌사회 일자리 발굴이 진행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배경과 거주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경험들을 바탕으로 농촌사회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농촌공동체 유지·발전 기여와 함께, 농촌사회의 경제적 주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가 요구됨. 이에 발굴되고 있는 새로운 농촌사회 일자리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

3

장

전북 결혼이주여성 농촌사회 일자리 인식조사

Jeonbuk Institute

-
1. 조사개요
 2.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변화과정
 3. 관계자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평가

제3장 전북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인식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 전북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 경제활동 특성, 다문화관점에서 농업·농촌일자리 정책과 생태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관 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사회 일자리와 일자리 정책 환경 등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책 관련 기관의 전문가 및 실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으로 전문가·실무자를 섭외함
- 농촌사회 정착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궤적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역할, 일자리 지원 정책 수혜 방식 및 내용 등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면접조사하기 위해 한국사회에 거주한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이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으로 제한을 두었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실무자 및 전문가는 각각 9명, 15명으로, 이들의 특성은 <표 3-1>, <표 3-2>에 각각 제시함

나. 조사내용

-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경제활동 활동 변화,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의미와 기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함
- 면접조사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음
 -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역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 출신국, 입국년도 및 거주기간, 귀화여부, 가족 구성, 배우자 연령 및 직업, 자녀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모국 최종학력, 한국어수행능력 수준, 한국에서의 학력 취득여부 등을 질문함
 -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경제활동 특성(직종, 근무여건, 만족도 등), 농업·농촌사회 취·창업 과정 및 경제활동의 변화(이직 과정, 직업훈련교육과정 참여 등), 향후 일자리에 대한 계획,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의미 등을 통해 다문화관점에서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환경을 파악하고자 함
 -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내·외적 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및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한 질문지를 구성함. 가정생활 특성 관련 질문은 부부관계, 가족관계, 가족지원 및 지지, 일-가정 양립 등이며, 지역사회 및 사회활동은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마을활동·사회활동 참여, 농촌생활 적응 등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질문함

〈표 3-1〉 결혼이주여성 면접조사 주요 질문사항

영역	주요 질문사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 연령, 출신국, 최종학력 ◆ 한국입국(년)/결혼, 귀화여부, 거주기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 가족적 배경(가구구성, 배우자 연령 및 직업, 자녀 연령, 가구소득)
경제활동	◆ 현재 경제활동 (여부, 취업경로, 직종, 근무조건, 근무여건, 만족도 등) ◆ 근로생애 (일자리시장 진입과정, 이직 과정, 취·창업 지원 수혜 경험, 만족도 등) ◆ 일자리 관련 계획, 일자리에 대한 생각, 정책적 욕구 등
가정생활	◆ 가족관계 ◆ 한국정착 및 경제활동의 가족지원·지지 ◆ 일-가정 양립
지역사회 및 사회활동	◆ 지역주민과의 관계(다문화수용성), 마을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 다문화가구 유무 ◆ 농촌생활 및 지역사회 인프라

- 현재 농업·농촌사회 일자리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경제 및 정책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 일자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면접조사를 위한 질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기관 특성별 면접조사를 위한 질문사항 간 차이를 둠. 취·창업에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전북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일자리와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농촌 결혼이주여성 고용기관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직무역량, 결혼이주여성 고용 만족도 등에 대한 고용주 및 실무자의 의견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전문인력화의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결혼이주여성이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의 내국인 실무자 또는 대표와의 면접조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운영 참여 정도,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요건 등에 중점을 둠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공간인 농업·농촌사회와 관련된 기관이 제시하는 취·창업 지원, 사회문화적 서비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농촌생활 정착 지원 교육 등에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도, 호응도, 실무자의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에 대한 의견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사회의 리더와 주체화를 위한 가능성과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표 3-2〉 기관 유형별 주요 질문사항

유형	주요 내용
기본 특성	◆ 기관 유형, 조직특성 ◆ 주요 사업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결혼이주여성 고용기관	◆ 결혼이주여성 고용인원, 채용과정, 주요 업무, 근무조건, 결혼이주여성 역량, 고용에 따른 성과,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에 대한 생각 등
결혼이주여성 운영기관	◆ 운영 인원, 창업 준비과정, 창업 과정, 운영과정, 성과, 일자리에 대한 생각 등
농업·농촌 관련 기관	◆ 지원 및 참여대상, 농업기반 취·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교육, 농촌 일자리 관련 취·창업 교육 및 훈련교육 ◆ 결혼이주여성의 호응도 및 참여도 ◆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및 확대에 대한 생각 등

다. 일반적 특성

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

-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활동 경험, 일자리에 대한 욕구 등을 살펴보기 위해 면접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은 4년에서 18년으로 나타남. 20대 여성은 3명, 30대는 4명, 40대는 2명이었으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은 30대와 40대임. 한국 거주기간과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들의 결혼 연령은 19세에서 25세 사이로 나타남
- 면접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베트남 5명, 필리핀 2명, 몽골 1명이었음.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모국에서 학력은 초졸에서 대졸로 다양했으나, 이 중 2명만이 검정고시를 통해 한국 초등학교 학력을 취득함.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사용능력 수준은 4년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한 여성들은 내국인과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없었으며, 내국인의 통역 없이 연구자와의 면접이 원활하게 수행되었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했던 결혼이주여성은 9명 중 5명으로, 2등급 이상을 취득함. 한국생활 초반에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사용능력 수준이 높더라도 2등급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TOPIK¹⁾은 6개 등급으로 구분됨. 1급과 2급은 TOPIK I로, 1급은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문법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2급은 약 1,500~2,000개 어휘를 사용하여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가능함. 또한,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구분할 수 있음
 - TOPIK II는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됨. 3등급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관계 유지를 위한 기초적 언어 사용과 함께 문어와 구어의 특성을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음
 - 4등급은 일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5급은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비공식적 맥락, 구어적·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하게 구분해 사용할 수 있음. 6급은 전문 분야의 업무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원어민 수준에 이르지 못하나 언어 사용과 의미 표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음
-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9명 중 구직 활동 중인 2명을 제외한 7명이었으며, 이들 직종은 생산직, 농업생산직, 서비스직, 전문직이었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7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5명은 정규직인 반면, 해외마케팅 다문화요원은 계약직이었음
- 가족특성은 시부모, 배우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3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한 6명은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음. 자녀수는 1명에서 4명으로 다양하며, 연령 또한 2세에서 17세임

1)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며, 시험대상은 외국인, 재외국민 특별대상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를 포함함(시험내용 및 수준)

출처: <https://www.topik.go.kr/usr/cmm/subLocation.do?menuSeq=2110101#none>

〈표 3-3〉 면접조사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출신국	거주 기간	학력	TOPIK	직업	가족 사항 (본인 및 배우자 포함)
1	34세	필리핀	12년	대졸(모국) 초졸(검정고시)	3급	체험마을 사무장	6명(시아머니, 자녀 3명)
2	29세	필리핀	4년	초졸(모국)	해당 없음	구직	6명(시부모, 시동생, 자녀 1명)
3	36세	베트남	12년	전문대(모국)	6급	해외마케팅 다문화요원	4명(자녀 2명)
4	28세	베트남	9년	고졸(모국)	해당 없음	마더쿠키 근무	5명(자녀 3명)
5	32세	베트남	13년	중졸(모국)	해당 없음	카페 매니저	4명(자녀 2명)
6	32세	베트남	11년	고졸(모국)	해당 없음	농사	3명(자녀 1명)
7	48세	몽골	15년	대졸(모국)	4급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통번역사	3명(자녀 1명)
8	28세	베트남	7년	중졸(모국) 초졸(검정고시)	3급	구직	4명(자녀 2명)
9	47세	필리핀	18년	대졸(모국)	2급	농협마트 근무, 농사	7명(시아머니, 자녀 4명)

-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관련 기관, 직업훈련교육기관, 농촌여성·결혼이주여성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실무자의 면접조사를 통해 현재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실태 및 정책 환경, 농촌 지역사회 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일자리 여건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면접조사 대상 기관은 농업·농촌 관련 기관으로 지역 단위 농협,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농촌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 다문화공동체 보물섬, (사)익산 농촌이민여성센터,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관련 기관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완주 농어촌형 여성세로일하기센터, 안전행정부지정 전라북도 완주군 마을기업 마더쿠키쌀빵, 무주 반딧불다모아 협동조합을 선정함. 이와 함께, 사회·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특성을 고려해 생활 돌봄 제공기관을 면접조사 기관으로 포함함

〈표 3-4〉 면접조사 참여 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의 기본 정보

구분	기관	부서/직급
1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력취득, 취업지원 담당자
3	완주 다문화공동체 보물섬	대표
4	사)익산 농촌이민여성센터	이사장, 이사
5	마더쿠키	대표
6	무주 반딧불다모아 협동조합	사무장
7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
8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부장, 다문화요원 멘토 위원
9	고산 농협	대리
10	고창 여성농업인센터	대표
11	익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담당자
12	한마음돌봄협동조합	대표
13	전북 행복한돌봄	대표

2.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변화과정

가. 노동시장 진입경로와 특성

-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이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참여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남
- 첫 번째는 주로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입국 후 최소 한국생활 및 농촌생활 적응 기간을 보낸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임
- 한국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모국의 학력, 직업경력 등이 큰 의미가 없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함
 - 주로, 농가, 공장, 식당 등 농업생산직, 단순생산노무직, 서비스직에 종사함
-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첫 번째 유형의 일자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로, 임금은 낮지만 매월 급여를 받는 경제적 안정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의 소득은 주로 친정 가족의 경제적 지원, 본인의 용돈, 자녀 교육, 생활비 충당 등 다양한 경제적 목적에 따라 사용됨
-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 가사노동, 가족농 등 참여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음.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의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질 낮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주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직종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정보 획득은 주로 먼저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앞서 언급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같은 출신국 여성들,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짐.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보 제공자의 이전 직장 또는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중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한 직장의 사업주 권유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독려받고, 직업 훈련 또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교육과정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간 및 물리적으로 지원을 받기도 함
- 이들은 교육과정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직장 내 직급을 부여받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됨
- 결혼이주여성이 근무하는 업체 대표는 농업·농촌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향후 역할과 위치를 강조하며, 농업·농촌사회의 주체화를 강조함
- 또 다른 유형은 노동시장 진입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어교육 또는 직업훈련교육 참여를 통해 기초소양, 직무능력을 갖추고 일자리에 종사하는 농업 결혼이주여성이 해당됨. 두 번째 유형은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교육 유형에 따라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됨
 - 첫 번째 그룹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지도사, 지역단위 농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한국어교육을 받은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결혼이주여성임. 내국인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관심 일자리를 발견하게 될 경우, 한국어교육에서 이탈하여 취업을 하게 됨. 이들은 주로 단순생산노무직,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게 됨
 - 다음으로, 면접조사 중 한국생활 정착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어수행능력을 강조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중언어와 다문화배경을 강점으로 관련 일자리에 종사함. 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등급 이상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강사, 다문화 통번역지원사 등 자격을 획득하여 경제활동을 함
 - 또한, 한국사회 노동시장 진입에 한국어수행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혼이주여성은 관심분야의 일자리를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을 선결과제로 인식함
 - 한국어수행능력을 높여 내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희망하는 전문직 관련 정보 수집과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직 준비를 함. 이들은 취업과 관련한 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무역량을 갖춘 후 노동시장에 진입함

- 이중언어 및 다문화배경 관련 일자리보다 그 외의 전문직 준비에 있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경제활동 궤적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이들의 직종변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편임. 이들은 일자리의 경우 자아실현의 장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해 희망 일자리 종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관련 교육과정 참여와 지원 사업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지역농협의 결혼이주여성 또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이 기관에서 연계해 주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유형임
- 이 기관들의 직업훈련교육과정은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6차산업 관련 교육과 그 외 바리스타, 홈패션, 네일아트, 미용,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에 집중되어 있음. 바리스타, 네일아트, 미용 자격증 취득은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관심을 가지는 취·창업 분야의 교육과정으로 강조됨
- 교육과정에 참여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일자리 다양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지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현재 농업·농촌일자리 환경에서 이들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강조함

나.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궤적과 경제활동

- 면접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수행능력, 정보 접근성, 직업훈련교육 참여, 자녀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 가족의 지지 및 지원, 사용자의 다문화감수성 등으로 나타남
- 한국어수행능력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종사과정과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어수행능력은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일자리의 선택 범위와 질을 결정함
-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동일 출신국 지인, 배우자의 가족 또 친척 등이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에 의해 주로 이루어짐. 지인들에 의한 일자리 소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수행능력에 따라 결정됨

- 한국생활에 적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한국어수행능력이 높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수행능력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게 됨
 - 이들의 첫 일자리는 주로 숙련된 직무능력, 지식, 높은 업무이해도 등이 요구되지 않는 농산물 생산직, 단순생산노무직,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게 됨.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급여의 특성을 가진 낮은 질의 일자리에 집중됨
 - 이러한 일자리는 높은 업무강도, 일·가정 양립의 물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한국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
 - 이들의 일자리 궤적을 살펴보면 지역 경제 여건,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잦은 경제활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일자리 유형 변동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직종의 수평적 이동이 주로 이루어짐
 - 이들의 구직활동 시, 기존 일자리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으로 구성된 개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됨
 - 내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결혼이주여성은 직업훈련교육, 한국어교육 과정 등에 참여를 하며 희망하는 일자리분야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함
 - 한국어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구직활동의 정보경로는 다양해짐. 이들은 개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구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새일센터, 고용센터, 시·군, 농협 등 기관을 적극 활용함
 - 이들은 직장 내 내국인 동료 또는 상사와의 의사소통, 업무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 접근이 가능함
 - 주로 이들 결혼이주여성은 이중언어와 다문화배경을 강점으로 한 일자리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지만, 중장기 직업계획을 세워 희망직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첫 일자리와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창업 준비, 역량강화, 이직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교육 참여는 한국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일자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및 교육, 일·가정 양립, 가족의 지지와 지원,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등에 영향을 받음

- 농촌 결혼이주여성, 농촌 여성, 농업·농촌 관련 기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물리적, 시간적 제한이 존재함
- 농촌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의 낮은 접근성과 주로 평일에 진행되는 교육과정 시간은 자녀양육, 가사노동, 가족농 참여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자녀의 생애주기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이 변화하게 됨. 경제활동을 참여하던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전일제 일자리에서 아르바이트, 부업 등으로 전환하게 됨
- 경력단절된 결혼이주여성이 구직을 하게 되는 경우, 단순노무직, 서비스업, 농산물 생산직 등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하는 경우가 존재함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비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직업훈련교육 참여 가능성과 일자리의 질의 차이를 보임. 고용 안정성이 높을수록 생계 책임 부담감이 낮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아계발을 위해 직업훈련교육 참여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기도 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변화궤적에서 가족의 지지 및 지원 또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언급됨.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노동, 가족돌봄 등과 경제활동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이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정생활의 책임을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직종과 일자리 특성이 결정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는 자녀양육, 가사노동, 가족돌봄 등 책임과 가족농 참여를 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함
- 사업주 및 관리자의 다문화수용성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직장생활 적응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직을 결정함. 사업주와 관리자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우,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역량을 평가절하하고, 직장 갑질에 따른 인권 침해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장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이 낮아져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직과정에서 직장문화를 결정짓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정보는 동일 출신국 지인, 전 직장 동료, 현 직장동료 등을 통해 수집하며, 주요 직장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안정성

- 결혼이주여성들은 최소한의 한국사회 및 농촌사회 적응기간 후, 모국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됨
- 이들은 취업 준비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업무강도가 높고 낮은 급여를 받는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단기간의 직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일자리로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편임
- 결혼이주여성은 일자리 질과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나, 임금근로자로서 정기적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함. 또한,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일자리의 낮은 접근성과 이직 용이성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를 선호하기도 함
- 직장 내 내국인 관리자 또는 사업주와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또는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숙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은 중숙련 직종에 종사하게 됨
 - 한국어수행능력과 직업훈련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업무이해능력, 업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직장생활의 적응과 만족도에 영향을 받음
 - 중숙련 직종은 정규 고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안정성으로 연결됨
- 한국어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주로 이중언어와 다문화배경 관련 일자리를 시작으로 이루어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육과 자격취득을 하게 됨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 이중언어강사, 다문화이해강사, 통번역사 등과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등장함
-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주기가 장기화 되면서 이중언어와 다문화배경 일자리 수요가 적어짐. 이들 일자리는 기간제 계약직 또는 파견직인 경우가 많아

고정적 수입을 얻을 수 없음

○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임

- 자아계발을 위한 직업을 희망하고, 자녀양육을 중요시 여기는 결혼이주여성은 만족감을 보임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소득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저숙련 직종으로 이동하거나 이중언어 및 다문화배경 일자리를 부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및 농촌사회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배경과 관련되지 않는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임

- 결혼이주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바리스타, 네일케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은 관련 일자리에 종사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격증이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는 이유로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생태계에서 지역사회의 낮은 다문화수용성으로 자신의 역량이 평가 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함
-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격증과 관련 없는 일자리에 종사함. 그 일자리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연관됨

3. 실무자 및 전문가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에 대한 인식

- 전북 농촌 결혼이주여성, 농촌 여성, 농업·농촌 관련 기관의 사업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의 면접조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 이들의 역량, 정책 여건 및 지원 인프라 등 현황과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들 기관의 주요 사업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5〉 실무자 및 전문가의 주요사업 및 내용

구분	기관	주요 사업 및 업무
1	마더쿠키	• 안전행정부지정 전라북도 완주군 마을기업 • 2010년 전북 완주군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시작 • 로컬푸드를 이용한 쌀 쿠키, 빵 생산 및 판매 • 지역 노인 및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제공 - 조작인원 관리직 4명, 60세 이상 지역주민 2명, 결혼이주여성 4명, 선주민 4명 • 마더쿠키 체험프로그램: 2015년 6차 산업으로 인증 받음
2	완주 다문화공동체 보물섬	• 2010년 지식경제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으로 선정. 2011년 3월 오픈 • 북카페 보물섬 운영 • 2017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육성사업 공모사업 '스페이스 누에살롱' 운영 (2019년 3월~7월)
3	새익산 농촌이민여성센터	• 2008년 설립(발기인 30명) • 조직도: 이사장, 이사 8명(결혼이주여성 2명), 조합원 30명 • 교육사업: 생활요리교실(매월 2회, 총 14회), 한국어 교육 및 컴퓨터교육(주 2회) • 조직운영사업: 나라별 대표자 모임(하나의 하늘), 회원 소모임(민들레 모임) • 상담사업: 다문화가족 부부상담(외부 상담센터 협력) • 지역복지사업: 요가교실, 컴퓨터 교육, 영어교실 • 기술교육사업: 봉제, 홈패션, 전지, 도배·장판 등 • 두리두레 협동조합 - 2012~2014년: 꽃물드림 카페 운영 - 홈패션
4	무주 반딧불다모아 협동조합	• 2015년 설립 • 무주군과 반딧불다모아 협동조합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가지조성을 위해 꽃묘 생산·납품 • 조합원: 36가구 55명 • 임원 8명(결혼이주여성 2명), 사무장, 조합원
5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학력취득지원사업: 초·중등 검정고시반 운영 • 직업훈련교육지원 사업: 컴퓨터 자격증, 바리스타, 홈패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식품가공 전문가, 행정 실무 사무원, 한식조리사 등

구분	기관	주요 사업 및 업무
6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학력취득지원사업: 초·중등 검정고시반 운영 • 국가 및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과정(2013년~현재): 간호조무사, 피부미용사, 보육교사, 바리스타, 관광통역안내사, 요양보호사, 미용사, ITQ자격증(정보 기술자격증) 등
7	고산 농협	• 여성대학(2009~2011):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교육 • 기초농업교육 사업 - 주 1회(토), 총 15회(6~10월) - 농작물, 농기계, 농가공 관련 교육 및 실습 • 요양보호사 교육생 지원사업(2018) • 주말돌봄방 사업(2015년~현재)
8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도내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해외시장 개척, 통번역 지원 등 - 다문화 요원 멘토링, 기초 및 보수교육 • 다문화 요원 - 모국 바이어 발굴 및 거래 알선 - 현지 시장조사, 현지 방문/바이어 초청 시 통번역 지원, 무역업무 지원 등 • 다문화요원 멘토 위원 - 다문화 요원 업무 교육 및 지원 - 매월 다문화 요원과 업체 간의 업무 관련 컨설팅
9	고창 여성농업인센터	• 어린이집 운영, 고창텃밭꾸러미, 농촌여성 취미여가사업(요가, 생활미술, 영어교실, 댄스 등) • 한국어교육 • 주민강사 양성학교 • '황토사랑' 소식지 발간 • 가정방문 농이교실 운영
10	익산 농업기술센터	•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 한국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연구회 • 교육사업: 공예, SNS활용, 농기계안전 등 • 연구회: 음식문화, 전통발효, 실습교육(제빵, 페백음식 등) 등
11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원스톱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 • 주요사업: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서비스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연계/사후관리 등 • 직업교육훈련사업: 생산제조품질 검사원 양성과정, 압화공예전문가, 생활나무 코디네이터 • 2019년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취약계층(다문화가족 여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12	한마음돌봄협동조합	• 농촌형 돌봄협동조합 • 주요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제도, 가사간병서비스
13	전북 행복한돌봄	• 사회적협동조합 • 주요사업: 가사관리 서비스, 베이비시터 서비스, 등하원돌봄 서비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이사청소 서비스

가. 결혼이주여성 직업훈련교육 지원기관 및 고용기관

-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참여 가능한 직업훈련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단위 농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단체 등이 대표적임. 직업훈련교육은 기관 또는 센터 간 차별성이 없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직업기초능력을 위해 컴퓨터교육 또는 정보기술자격증 취득(ITQ), SNS교육, 행정 실무 사무교육 등 직업훈련교육사업이 있음(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사)익산 농촌이민여성센터 등)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분야 또는 이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맞춤형 직종을 선정하여 관련 직업훈련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교육 사업은 주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봉제, 홈패션, 피부미용사, 미용사 등이 있으며, 운영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 민간단체 등이 있음
- 일부 기관의 직업훈련교육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전문자격증은 주로 요양보호사, 관광통역안내사, 한식조리기능사, 보육교사, 미용사(피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연령의 차이는 대표적인 다문화가족 특성으로 배우자의 고령화는 점진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가중시킴. 또한, 자녀의 교육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을 위해 전문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관 실무자가 언급함
 - 실무자들은 한국어 실력이 좋은 결혼이주여성이라도 말하기 능력에 비해 읽기와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어 전문 용어 및 이론 이해의 어려움으로 자격증 취득 준비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강조함
 - 자격증 취득 실패경험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하락으로, 자격증 취득 재준비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이 교육과정을 이탈하지 않고 의지를 고취하는 것은 기관 관리자 및 실무자의 중요 역할이라고 언급함

-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다국어 시험지 도입 확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 성공률을 높이며, 자격증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와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기대함
-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국가·민간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일자리 수요, 결혼이주여성의 선호 분야 직종,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률 등을 고려해 매년 직종을 선정함
-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 직업 분야 자격증 취득 성공사례를 지역신문, 공공기관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지역사회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이 농촌 지역의 노동시장 진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면접조사에 참여한 관리자 및 실무자는 언급함

- 농촌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로 지역사회의 낮은 다문화수용성과 낮은 일자리 수요를 꼽음
- 지역사회 노동시장의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들의 직무역량은 평가 절하되고, 사업주의 결혼이주여성 고용을 선호하지 않아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논의됨
- 일부 기관은 사업주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체가 희망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을 구인-구직 매칭과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주와 결혼이주여성 간 상호작용과 만족도를 증진시켜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안정성을 높임

○ 지역사회 시장 수요, 창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 행정적 절차, 창업자금 부족 등이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창업 장벽으로 언급되었으나,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언급함

○ 면접조사에 참여한 관리자 및 실무자는 다문화관점에서 창업 관련 기관의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리더십과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표 또는 실무자는 주로 내국인이 담당하고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관리자로서 참여를 위해서는 역량강화의 기회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마더쿠키의 경우, 제과제빵 교육 참여와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현장과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익산 농촌이민여성센터와 무주 반딧불다모아 협동조합 모두 결혼이주여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내국인이 이사장 또는 관리자로 센터 및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경영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운영 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강조함

나. 농업·농촌 관련 기관의 교육·훈련 및 일자리

- 여성농업인센터는 주로 여가·문화교육, 보육,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복지·여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여성농업인센터의 주 이용자는 내국인 여성과 여성노인이었음
-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로 자녀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또는 이동식 놀이교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 농촌 결혼이주여성 대상 농업교육을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경우, 가족농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으로 단위 농협의 영농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영농교육과정에서 농작물 재배, 농기계, 농가공 관련 실습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관리자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영농교육과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성들의 물리적, 시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주중에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과정을 주말시간에 주로 운영하며, 이와 함께 교육과정동안 자녀를 보살펴주는 주말돌봄방을 운영함

- 농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규모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 농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매년 교육과정의 일부를 결혼이주여성의 수요 지식 및 기술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있음
 - 매년 기초영농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참여자 중 결혼초기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수행능력 중 읽기와 쓰기 능력이 낮아 이들의 농업 관련 이론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초영농교육교육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사업 운영자가 강조함
 - 기초영농교육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수행능력, 특히 쓰기 및 읽기능력 향상이 선결과제이며, 한국어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사회 이해와 함께 영농교육운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관련 기관의 경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및 창업 관련 교육·훈련과정과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 3조(농업인 기준)에 따르면, 농업인은 '1,000m²(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농업인 자격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농업기술센터 등의 지원 수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여 하는 경우, 내국인과 달리 한국어수행능력과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육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음
- 복지·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사회에서 문화·여가, 보육, 돌봄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직종은 주로 임금근로자가 아닌 파견직, 기간제 계약직으로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이 아님
 - 농촌사회의 낮은 다문화수용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음

4

장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 방안

Jeonbuk Institute

-
1. 지원정책 기본방향
 2. 정책과제 추진방안

제4장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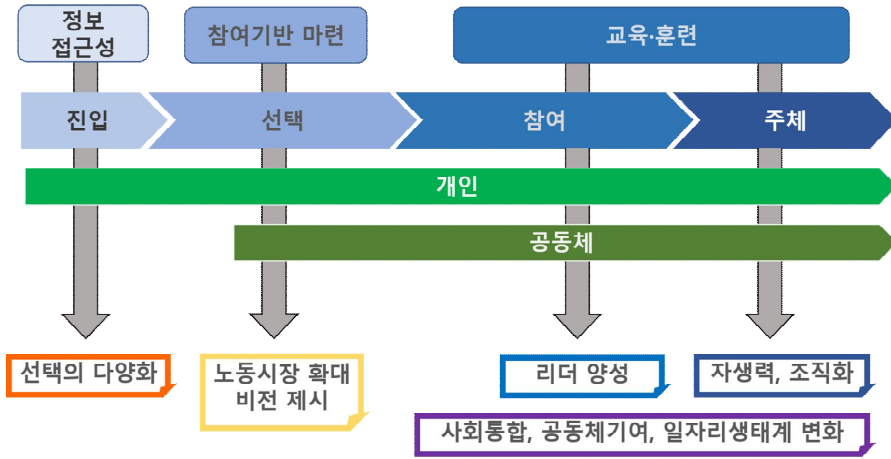
1. 지원정책 기본방향

- 다문화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농촌사회 일자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 강화가 요구되며, 농촌사회 일자리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역량강화, 농촌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따른 노동시장의 진입 용이성과 선택의 다양성,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촌사회 일자리 환경 조성 등은 다문화관점을 반영한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지원정책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농촌사회 일자리 환경의 주체화를 위한 기초소양은 한국어수행능력임
 - 한국어수행능력은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남.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지원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이 농촌 지역사회 노동시장에서 한국어수행능력의 필요성과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농촌사회 일자리 정책은 전북 농업·농촌의 변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의 확대가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사회 일자리와 다문화배경 일자리 모두 결혼이주여성에게 비해 농촌 여성내국인에게 기회 제공이 상대적으로 많음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농업·농촌사회 일자리 비전과 목표 설정, 일자리 생태계의 주체 다양성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정책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정보 수집이 용이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정보 접근성 증진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에 따른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은 매우 한정적임. 고정 수입원을 선호하는 여성의 경우, 공장, 식당, 농가 등에서 노동집약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함. 한국어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은 이중언어 및 다문화배경 일자리에 종사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결혼이주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는 주로 이들의 삶터이자 일터, 일상생활 공간인 농촌사회 특성과 다문화배경이 함께 반영된 일자리와 거리가 있음.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문화배경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고용안정성, 창업 안정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발굴과 환경 조성이 요구됨
-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효능감과 자긍심 증진을 통한 농촌 지역사회와 일자리 생태계의 전문인력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요구됨
- 결혼이주여성의 강점과 역량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이 요구됨
- 농촌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사회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자생력과 조직화가 가능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농촌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활력화에 기여하고 농촌사회 일자리 환경을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전북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4- 1〉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 정책 로드맵



〈표 4-1〉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창출 방안

단계	정책방향	세부사업
노동시장 진입	정보 접근성 증진	온라인 다국어 취업 정보 게시판 운영사업
		다국어 취업 정보 게시판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다문화 SNS 사랑방 운영사업
		찾아가는 농업·농촌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일자리 선택	경제활동 참여기반 마련 (일자리 환경 조성)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 일자리 발굴 및 자격증 도입
		농촌 청소년 언어공부방 운영사업
		농촌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 지원사업
		외국어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사업
		단기 농업 연수 프로그램 사업
		1인 미디어 창작 제작소 건립
		다문화 꾸러미 택배비 지원
노동시장 참여	교육·훈련	농촌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및 학력취득 지원 강화
		전문 분야 이중언어 인재 양성사업
		농식품 해외 마케터 양성사업
		취약계층 창업사관학교 사업
		취약계층 외식 창업을 위한 공동주방 지원사업
		취약계층 생산제품 구입촉진 지원사업
지역 노동시장 주체화	자생력 강화	삼람농정위원회 참여 지원
		결혼이주여성 농업·농촌 혁신리더 시상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2. 정책과제 추진방안

가.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 노동시장 진입 용이성 증진

1) 온라인 다국어 취업 정보 게시판 운영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구직정보 수집량의 차이를 보임. 정보접근성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들의 역량과 일자리의 질의 미스매칭이 발생함
- 미스매칭에 따라 질 낮은 일자리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어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결혼이주여성 역량과 노동이 평가 절하되며, 이들에 대한 한국 농촌사회의 사회통합과 인력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단일 정보 창구 통로로 다국어 정보를 제공 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과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수집과 취업을 통해 역량 발휘와 사업주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지역경제 인력의 활발한 수급과 활성화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단일 정보 창구 제공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농협,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로컬잡(JOB)센터
- 사업내용
 - 농업·농촌 일자리 관련 기간과의 협력망 구성 및 운영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다문화 취업 및 교육·훈련 정보 게시판 운영

■ 주요사업내용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교육·훈련 정보 제공 게시판 운영
 -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비율에 기반하여 선정된 언어로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 관련 기관 협력망 구성 및 운영
 - 전라북도, 시·군, 시·군 관공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로컬잡(JOB)센터, 전주고용노동지청 등 협력망 구성
 - 일자리, 직업훈련·교육 정보를 게시판에 업로드

2) 다국어 취업 정보 게시판 설치 및 운영지원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이용 빈도가 높은 기관에서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여,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특히, 온라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용이성을 높이며,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재 수급이 원활해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지역 일자리 정보 접근 용이성 향상
- 사업기간 : 2020년(1년)
- 사업주체 : 시·군
- 사업주관 : 시·군, 시·군 관공서, 지역농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 사업내용

- 지역 취업 및 교육·훈련 정보 게시판 설치
- 게시판 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게시판 설치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 시·군 관공서 등

○ ‘온라인 다국어 취업 정보 게시판’ 지역별 정보 게시

- 게시판 운영비 지원

3) 다문화 SNS 사랑방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결혼이주여성의 주 정보원은 출신국 네트워크로 이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농촌사회 및 직장생활에 적응함. 언어소통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 취업, 직장생활 등 정보수집과 고충해결의 사회자본이 열악함
- SNS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물리적 이동성과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정보, 관계 기관 정보, 고민상담 등을 출신국 SNS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농촌공동체 적응과 사회통합을 강화시킴
-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높여 시민의식을 높이며,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 유도가 가능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국인주민의 생활정보 및 취업·교육 정보 공유, 적합 정보 습득 용이성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선호 외국어 선정 및 언어별 SNS 운영
- SNS 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출신국별 SNS 운영자 선정 및 인건비 지원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자 중 출신국별 운영자 선정
- 생활, 취·창업, 교육·훈련 관련 정보 관리

○ SNS 운영자 모임 구성

- 모임 운영비 지원

4) 찾아가는 농업·농촌 일자리 박람회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농업·농촌사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이해와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함
- 맞춤형 인재 채용과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력난을 해소하고, 결혼이주성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여 구직활동의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자리 정보 및 구직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로컬잡(JOB)센터,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업내용

- 농업·농촌 일자리 박람회 개최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권역별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한 취업 관련 특강 실시(분기별 1회)

- 산업별 취업역량강화 특강 실시

○ 권역별 상·하반기 박람회 개최

나. 농업·농촌 일자리의 다양화

1)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 일자리 발굴 및 자격증 도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북 농업·농촌사회의 변화에 맞춰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아이템 발굴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미래주력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 농업·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진을 도모함
- 전문 분야 경제활동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이들의 다문화배경을 활용 및 역량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인 인재로 육성하여, 이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긍심을 증진시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및 성장 동력 양성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5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 일자리 선정
 - 선정 일자리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결혼이주여성 교육수당 지원
 - 결혼이주여성 수료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기업에 연수생 인건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미래성장 유망 아이템 발굴 산업’ 공모사업(유망분야 아이템 선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미래성장 아이템 산업' 육성 사업 운영비 지원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자격시험 도입 및 자격 등록제도(인재 DB 구축)

2) 농촌 청소년 언어공부방 운영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설치하여 농촌사회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북 농촌의 다문화사회 진입과 국가 간 사회문화적 교류로 국제화되면서 전북 농업·농촌의 세계화를 위한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이 요구됨. 이를 위하여 한국 문화와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를 활용하여 세계시민으로 청소년이 성장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문화배경에 대한 자긍심을 높임
- 농촌 다문화가치 인식고취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 지역 청소년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언어교육 기회 제공 및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 (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
 - 농촌 청소년 언어공부방 설치 운영
 - 지역사회 내 결혼이주여성 강사 모집 및 공부방 운영

■ 세부사업내용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농촌 청소년 언어공부방 공모사업
 - 선정 마을 언어공부방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강사 모집 및 선발
 - 자격요건 규정 및 인건비 지원

3) 농촌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 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해외여행 소외계층인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의 일환인 해외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참여 의식 확대와 세계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강화의 장을 마련함
-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과 교류 참여를 통해 세계시민 참여의식 함양, 자아실현 도모, 다문화감수성 증진 기회를 제공함.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배경과 청소년 교육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높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 모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도모와 글로벌 능력 강화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3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 사업내용
 - 대상 국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업무협력
 - 자원봉사단 관리자 및 참가 청소년 항공권 및 체류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시·군별 결혼이주여성 모국과의 협약 사업
 - 지역별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비율에 따라 매년 협약 국가 선정
- 인솔 결혼이주여성 지원 및 선발
- 인솔자 및 농촌 청소년 자원봉사단 항공료 및 봉사활동비 지원

4) 외국어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농촌사회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각광받았으나, 체험마을이 증가하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음
- 전북 농촌의 다문화인구 증가로 농촌공동체에 한국인과 결혼이주민의 상호 협력과 공존이 요구되며 농촌사회의 다문화는 마을사업에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가능함
- 농촌문화와 다문화가 공존하는 체험을 통해 참여자의 다문화수용성 증진과 글로벌 인식 함양의 장 마련으로 농촌마을 경제 활성화를 기여 가능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사회 및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국제화에 맞춘 농촌체험마을사업의 모델 제시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3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외국어 농촌체험마을 공모사업

■ 세부사업내용

○ 외국어 농촌체험마을 공모사업

- 1, 2차 년도 공모사업은 기존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외국어 농촌체험마을 공모사업 추진
-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어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자로 채용 필요
- 결혼이주여성 인건비 지원
- 외국어 농촌체험마을 모범사례집 발간

5) 농촌 단기 연수사업 추진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신흥 수출시장개척의 차원에서 시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농업대학생, 농업고등학생의 전북 도내 우수 농업현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위한 장을 제공함
- 전북 농산업의 인적자원 확보와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전북 농식품 수출 판로를 마련하여, 전북 농가와 농산업의 수입을 증진시킴
- 결혼이주여성 이중언어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 국가 연수생의 농촌 생활과 농업 활동의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아효능감과 자긍심을 증진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농촌 부문 국제협력사업으로 전북의 선진농업 교육과 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신흥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 (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농가 및 농식품 사업체
- 사업내용
 - 단기 농업 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 단기 농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연수생 숙소 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개발도상국-시·군 협약 지원
- 연수 프로그램 주관 기관 공모 및 선정
 - 연수생 숙소 운영비 지원
 - 연수생 지원 업무 수행 결혼이주여성 인건비 지원

■ 타 지자체 유사사업 : 경상북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농업 연수단 초청(2019)²⁾

- 2019. 12.09.~14.(6일간) 농업연수단 14명 초청하여 도내 우수농업현장 벤치마킹 실시 및 상호 협력 강화 논의

〈그림 4- 2〉 경상북도 인도네시아 농업연수단 초청



6) 다문화 꾸러미 택배비 지원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문화와 세계 음식 및 음식문화에 대한 도시민과 외국인주민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다문화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2) 출처 : '경북도, 인도네시아 농업연수단 초청(2019.12.10.)', 이뉴스투데이.
<https://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4695>

- 다문화 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꾸러미사업을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소득 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민, 외국인주민, 도시민이 선호하는 지역 다문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혼이주여성 생산자의 수익증대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 (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업체 선정
 - 다문화 농산물 꾸러미 공모사업 추진
 - 다문화 농산물 꾸러미 공동체 택배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다문화 농산물 온라인 판매자 정보 홍보 지원
 - 홍보물 제작비 지원
 - 전라북도청, 시·군, 시·군 관공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홍보물 배치
- 다문화 농산물을 이용하여 꾸러미사업 운영자 선정
 - 택배비 지원

- 향후추진 : 마을, 공동체 단위별 운영되며 정보교류를 통해 상품 중복 개발과 생산 공급체계 운영 효율, 소비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종합 포털사이트와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다.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1) 농촌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력취득 지원 강화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기관과의 물리적 거리와 경제활동 희망에 따라 한국어교육 참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존재함. 한국어수행능력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질 낮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음
- 직업변동 및 이직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수행능력과 학력으로 직종의 수평 이동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한국어수행능력 향상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선택이 다양해지면서 경제활동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를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 학력취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쟁력을 키우며, 직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 (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농협
- 사업내용
 - 농촌 글로벌 마을학당·한국어교육 및 학력취득과정 간식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교육 수당 지급

■ 세부사업내용

-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글로벌 마을학당과 지역농협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간식비 지원
- 학력취득과정 교육수당 및 강사 인건비 지원
- 학력취득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장려금 지원

2) 전문 분야 이중언어 인재 양성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내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문화 이해와 제도에 따른 고충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문화 및 제도에 이해도가 높은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요 인력으로 활용 가능함
- 한국어수행능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언어인재로 활용함에 따라 전라북도 다문화가족과 산업인력인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함
- 이들의 원활한 적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효능감과 직업 가치관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 역량 및 자아효능감 향상, 다문화사회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3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재 대학,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

- 전문통역사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자격증 발급
- 결혼이주여성 교육수당 및 수료증·자격증 장려금 지급

■ 세부사업내용

- 전문 분야 통번역사 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육기관 협약체계 구성(사법, 금융, 의료, 무역 등)
 - 양성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비,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 수료증·자격증 도입
- 결혼이주여성 교육수당 지원, 수료증·자격증 장려금 지원
- 통번역사(DB) 구성 및 관리
- 관련 기관 협력 및 홍보

■ 향후추진 : 수요자-공급자 매칭 온라인플랫폼 구성 및 운영

3) 농식품 해외 마케터 양성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농산품 수출을 희망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 수출 계약, 무역 업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열악한 실정임
-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수출 대상국의 문화 이해와 언어 문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상대국 문화 이해, 이중언어, 관세, 규제, 마케팅 등과 관련한 무역 실무 등 역량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하여 수출 준비, 계약, 무역업무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고 전북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무역 분야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성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 역량 활용을 통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통해서 수익증대 및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3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
 - 전문통역사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오프라인·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 결혼이주여성 교육 수당 및 수료증 장려금 지급

■ 세부사업내용

- 무역 분야 실무자 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육기관 협약체계 구성
 - 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비, 강사비, 운영비 지원
 - 보수교육 강사비, 운영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해외 마케터 DB 구성
- 농식품 분야 수출 지원 기관 협력체계 구성
 - 결혼이주여성 해외 마케터 사업 홍보 및 희망업체 파견

■ 향후추진 : 농업법인회사, 영농조합법인 등을 위한 수출지원센터 설립과 수출 준비와 거래를 위한 국내인과 결혼이주여성 마케터 배치,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 참고자료 : 전라북도-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해외시장 개척 다문 화요원'

4) 취약계층 창업사관학교 및 전담 컨설팅 인력 배치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촌사회 장점과 창업희망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창업자금과 창업 및 운영 경험 부족에 따른 실패 최소화 와 착근을 위한 창업자금, 맞춤형 취업상담, 창업실무 교육, 사후관리 지원 이 필요함
- 취약계층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을 준비하거나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3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사업내용
 - 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대상 창업 준비 공간 제공 및 컨설팅
 - 창업 후 3년간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창업사관학교 운영 : 취약계층 맞춤형 창업상담 및 창업실무 교육
- 창업사관학교 수료자 대상 창업 준비 공간 대여(3년) 및 창업자금 대출
- 취약계층 창업자 전담 컨설팅 인력 배치 및 창업 이후 5년 간 전문 컨설팅

■ 향후추진 : 취약계층 창업자들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공간 창출

■ 참고자료

- 완주문화재단 예술로 창업 인큐베이팅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 사업내용 : 무담보·무보증 저금리 창업자금 대출, 창업교육, 전문 사후관리
 - 대상 : 만 20세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중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가장 등
 - 서울희망플러스 또는 꿈나래통장 저축 완료 시 신청가능

5) 취약계층 외식 창업을 위한 공동주방 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메뉴 개발, 식품품 손질·조리를 위한 주방과 주방설비 임대료 지원을 통한 창업비용을 절약하여 착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외식 창업자들 간 상호작용 및 지속적인 전문 컨설팅 제공을 통해 창업 노하우를 학습하고 공유하여 창업 실패를 낮출 수 있음
- 성공적인 외식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음식 제품의 생산 거점이며 소규모 물류 허브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설비 제공에 따른 취약계층의 소득 증진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3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로컬푸드레스토랑,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사업내용
 - 협력업체 임대료 지원

■ 세부사업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동주방의 제도적 규제 완화
- 공동주방 공모사업
 - 레스토랑 협약 체결
 - 주방 및 주방설비 임대료 지원
 - 외식 창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지원 기관의 컨설팅

6) 취약계층 생산제품 구입촉진 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판매 판로 확보가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을 통한 지원이 요구됨
-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 조직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현장 수요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초기 지원이 요구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산품을 매개로 취약계층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3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취약계층 사회적경제 조직, 도내 사업체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 판매 제품 구입비 지원
- 근거법령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4조(우선구매 촉진)

■ 세부사업내용

- 취약계층 생산제품 구입촉진 지원사업 공모
 - 산업별 사회적경제 조직 선정
- 구매 기관 협약 체결
 - 구입비 50% 지원(2년), 30% 지원(1년)

라. 노동시장의 주체화

1) 삼락농정위원회 참여 지원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삼락농정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연령, 여성, 현장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 확대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농정 논의에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적 이슈와 의견을 제시하며 농촌사회 주민의 주체화를 유도하는 농정거버넌스를 운영함
- 농촌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향후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삼락농정위원회 참여하여 사회·정책적 의견을 제시하며, 농촌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수용성과 이들의 사회통합 강화를 통하여 농업·농촌사회의 리더십과 주체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참여 증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창의적인 의견 제시와 농촌공동체 주체로서의 주도적 역할 인식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 위원 추천제 운영

■ 세부사업내용

- 시·군별 결혼이주여성 추천
 - 지역주민(이장, 관공서 직원 등)의 추천
 - 매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변경

2) 결혼이주여성 농업·농촌 혁신리더 시상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과소화 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농촌사회 리더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리더십 증진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농업·농촌 선도 주역으로 자긍심을 높임
- 농촌사회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노동환경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기여와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사회와 다문화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잠재력과 자긍심 고취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5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지역농협
- 사업내용
 - 지역별 농촌 결혼이주여성 선발 및 장려금 수여
 -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 해외 연수 지원

■ 세부사업내용

- 농촌 결혼이주여성 리더십과정 운영
 - 리더십과정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 리더십 과정 수료자 장려금 지원 및 보도자료 배포
- 선진 해외 농업·농촌 연수 항공료 및 숙박료 지원

3)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의 농업·농촌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발전방안 등 제안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생태계 향상 기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주체화와 자긍심을 강화함
- 다문화 관련 일자리 아이디어에 대한 부문을 추진하여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통합을 높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강화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라북도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농업·농촌 활성화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5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수상 개인·공동체 장려금 및 사업운영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일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부문 및 다문화 맞춤형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부문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보도자료 배포
- 일자리정책 추진 참여 기회 제공

5

장

요약 및 결론

제5장 요약 및 결론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2000년 이후 전라북도 농촌의 다문화가족 규모가 증가하고 농촌사회의 고령화·과소화는 농촌의 다문화사회 진입을 촉진시킴. 이와 함께, 농촌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농업·농촌 일자리 종사자의 인구 또한 변화를 야기함
- 전라북도 농촌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중요한 구성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정책은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증진을 중점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위치가 아닌 주변인, 정책의 수혜자로서 인식되어 있음
- 농촌사회의 생산인구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노동시장에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인력으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노동시장의 주변인으로 인식되어 역량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이 되는 현실임
-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궤적에서 경제활동의 특성을 통해 일자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일자리 관련 기관 전문가·실무자들의 지원 사업 추진경험과 결혼이주여성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농업·농촌 일자리 생태계와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을 진단함
- 결혼이주여성과 일자리 관련 기관 전문가·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북 농촌사회의 특성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농업·농촌 노동시장에서 주체적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농촌사회 노동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과의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경로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와 교육·훈련 등 과정을 참여한 후에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을 바로 시작한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특성을 보임. 이들은 한국어수행능력이 낮으며, 단순생산노무직, 서비스직, 농업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수행능력은 농업·농촌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함. 한국어수행능력은 구직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희망직종 구직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의 모습을 보임. 또한, 한국어수행능력 수준에 비례해 일자리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은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일자리 정보 부족, 교육·훈련을 위한 시간 부족, 일·가정 양립, 사업주의 낮은 다문화감수성 등으로 나타남
- 한국어수행능력은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내 내국인 동료 또는 상사와의 의사소통, 업무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수행능력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은 높은 업무강도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자리 유형 변동이 어려워 직종의 수평적 이동만이 가능함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특히 단순생산노무직, 서비스직, 농업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물리적 시간의 제약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부족함이 지적됨

- 사업주 및 관리자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낮은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에서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은 업무강도가 높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를 고용기간동안 경제적 안정성의 보장으로 언급함
- 한국어수행능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 또한 일자리 수요가 낮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높아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단순생산노무직, 서비스직 일자리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직업만족도가 높았음
- 지역사회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일자리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은 취업과 연계되는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관심과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자격취득이 노동시장 진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국가자격증 취득과 취업과 연계 어려움은 다문화수용성과 관련이 있음. 결혼이주여성이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시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임

- 결혼이주여성 고용 사업체 또는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진의 경우, 농촌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함
- 결혼이주여성의 업무과정에서 보여주는 역량과 잠재력 발견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함. 이는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자리 생태계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주변인이 아닌 주체, 리더로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다양함. 한국어수행능력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선택의 폭과 노동시장의 진입 용이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수행능력은 결혼이주여성이 농업·농촌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이해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업무수행 역량과 직결됨. 이들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 및 이해력 증진은 중요함. 이는 한국어수행능력 증진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은 일상생활 어휘에서 노동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함
-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직업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자신의 미래설계 및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의 일터이자 쉼터인 일상생활 공간 농촌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생력, 변화 주도, 기여는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됨. 이는 농촌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임

- 현재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다문화관점에서 이중언어와 다문화배경 관련 일자리 참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장점을 강화하고 농촌사회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 지원 방안은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증가를 위해 농촌 일자리 환경 적응을 위한 기초소양과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지원되어야 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춰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이 농업 기반 일자리 이외에 개인의 삶 및 농촌 공동체에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제안하면, 진입, 선택, 참여, 주체 4단계로 이루어짐
- 진입과정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선택의 다양화를 증진시키고자 함.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현재 전북 농촌 일자리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통하여 자신의 직업역량을 판단하고 자신의 직업 설계 및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선택단계는 농업·농촌 변화와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 기회를 높이는 정책을 기반으로 직업 가치관과 가치를 제시하고자 함. 일자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문화관점과 농업·농촌사회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이 요구됨
- 참여단계는 기존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신뢰와 자기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원이 필요함.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 농업·농촌사회 인력으로 육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이 요구됨
- 주체화 단계는 일자리정책의 궁극적 목표로서 농업·농촌사회의 주체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생력과 조직화를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생태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증대를 통해 이들의 사회통합 강화와 공동체 기여를 기대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종원(2017).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방안. 강원연구원.
- 강혜정(200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실태 분석. 농촌경제, 32(5), 133-152.
- 강혜정(2011). 기혼 여성농업인의 농외노동시간 결정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8(2), 1-28.
- 강혜정(201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10(1), 43-62.
- 국민농업포럼(2018). 2018년 농촌진흥사업의 일자리 창출성과 및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 농촌진흥청.
- 김경아(2012).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지방정부연구, 16(1), 381-409.
- 김기홍(20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기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21(2), 49-102.
- 김기홍·허태영·황명진(2011).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복태·박성정·문미경·김둘순·최천근(2016).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학실(2011). 충북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 사회과학연구, 28(2), 155-193.
- 김한곤(2009).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1), 83-102.
- 농림축산식품부(201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
- 박대식·마상진·권인혜(201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안석·김남훈·임지은(2018).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최경은(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재규(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5(1), 5-33.

박행모·문승태(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실태 분석. 한국농산업교육학회, 40(2), 69-91.

설동훈·박신규·이순미·박순영(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안석·엄지영·박지연(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순미·김승희·이미화·김미숙(2010).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17(2), 153-184.

양승민·연문희(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43-966.

엄진영·최용호·박지연(2018).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이연화·고지영(20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방안. Issue Brief, 1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9~2023)

전라북도. 전라북도사업체조사

정형옥·최윤선·최지현(2011). 경기도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경옥·정유리(2016).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전북연구원.

태희원(2015). 충남 농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통계청. 지역소득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허미영(2015).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 2020-05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방안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2월 28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86-8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